

# “다시 보는 IMF...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



위기를 막으려는 통화정책팀장 한시현 역 김혜수



위기에 베풀하는 금융맨 윤정학 역 유아인



회사와 가정을 지키려는 가장 갑수 역 허준호



혼란을 막기 위해 위기를 덮으려는 재정국 차관 역 조우진

“1997년은 우리 현대사에서 큰 변곡점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IMF(국제통화기금) 협상은 지금까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당시 긴박한 시대를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정치사는 1987년 개헌 전후로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의 나뉘는 경계선의 관점에서 '87년 개헌'에 버금가는 일대 사건이 '1997년 외환위기'다.

한국 경제를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으로 밀어 넣은 외환 위기를 다룬 최초의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다음 달 28일 관객과 만난다.

24일 CGV 압구정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최국희 감독은 “누군가는 위기를 막으려고 했고, 누군가는 위기에 베풀었고, 누군가는 가족과 회사를 지키려고 뛰어들었다”며 “1997년을 경계적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영화는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협상 당시 비공개로 운영한 대책팀이 있었다는 기사에서 출발했다. 한 줄 기사에 영화적 상상력을 가미해 국가부도 일주일 전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캐릭터들을 창조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한시현’(김혜수 분)은 가장 먼저 위기를 예측하는 인물이다. 비공개 대책팀에 투입돼 현 상황을 국민한테 알리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선의 반대에 부딪힌다. IMF와의 협상 테이블에서도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조우진은 ‘한시현’과 대적점에 선 ‘재정국 차관’ 역을 맡

## 영화 ‘국가 부도의 날’ 내달 28일 개봉 가상 인물 이야기지만 사실 기반해 제작 김혜수·유아인·조우진 등 연기 호흡

었다. 외환위기 해결을 위해 IMF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기를 발판으로 한국 경제의 새 판을 짜려 한다.

이들과 상대하는 IMF 총재 역에는 프랑스 배우 뱅상 카셀이 캐스팅됐다. 외환위기 당시 IMF 총재 미셸 캉드쉬가 프랑스 국적인 점을 고려했다.

위기에 베풀려는 인물도 있다. 잘나가는 금융맨 ‘윤정학’은 외국 투자자의 철수 조짐, 실물경제의 침체기 같은 징후를 포착하고 국가부도에 ‘올인’한다. 그는 위기가 인생을 바꿀 기회를 직감하지만, 대한민국 현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갑수’(허준호 분)는 당시 무방비 상태로 위기에 노출된 서민을 대변한다. 납품처 부도로 어음이 휴지조각이 되자 갑수는 파산만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김 감독은 “가상 인물 이야기를 다루지만 실제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당시 사회상과 협상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 팩트체크를 열심히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경제용어가 많이 나오

는 만큼 촬영에 들어가기 전 대본 독회를 수차례 했다고 한다.

김혜수는 “시나리오를 보면서 피가 역류하는 느낌이였다. 분명 상상력이 가미된 시나리오임에도 흥분해서 검색하면서 시나리오를 봤다”며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기 전에 이 영화는 반드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혜수는 ‘재정국 차관’ 역을 맡은 조우진과의 호흡에 대해 “조우진 씨에게서 불꽃을 봤다”며 “좋은 배우와 연기 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조우진 씨 덕에 큰 에너지를 얻었고 ‘한시현’이라는 캐릭터도 힘을 얻었다. 이상적인 시너지를 발휘한 순간이었다”고 평했다.

이에 조우진은 “시나리오를 받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느낌을 받았다”며 “그 흥분이 현장까지 이어진 듯하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관객에게도 전해져서 영화를 잘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유아인은 “이전 작업에서는 느낌이나 직관에 많이 의지했는데 배우로서 가져야 하는 성실함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채찍질한 작업이었다”며 “돈의 세계를 살아가는 인물을 통해 공감대를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허준호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 끔찍한 상황에 대해 조금 경험이 있었다”며 “이 영화가 그 끔찍함을 이겨내고 우리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모티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댄싱 퀸’ 제대로 보여줄게”

김완선, 데뷔 32년 만에 첫 전국 투어

‘한국의 마돈나’로 불리는 가수 김완선이 데뷔 32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투어를 펼친다.

24일 소속사 J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완선은 11월 17일 서울 KBSO레나홀과 12월 7~8일 부산 KBS홀 등지에서 ‘김완선 콘서트’란 타이틀로 무대에 오른다.

소속사 측은 “첫 전국투어인 만큼 가수와 회사 모두 공연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관객이 함께 즐기고 추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1986년 1집 ‘오늘밤’으로 데뷔한 김완선은 고혹적인 눈빛과 화려한 댄스가 트레이드 마크인 원조 ‘댄싱 퀸’이다. ‘나 홀로 뜰 앞에서’, ‘리듬 속의 그 춤을’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으며, ‘뽀아로는 우릴 보고 웃지’와 ‘가장무도하’가 수록된 5집으로 여자 가수 최초로 단일 앨범 100만장 판매 기록을 세웠다. 1990년대까지 5회 연속 올해의 가수상을 받기도 했다.

1992년 6집을 끝으로 대만 등지에서 활동한 그는 9집을 낸 2005년까지 복귀와 공백을 반복하다가 2006년 미국 하와이로 떠나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2011년 복귀한 그는 꾸준히 신곡을 선보였다. 2016년에는 ‘유즈 미’(Use me), ‘셋 미 온 파이어’(Set Me On Fire), ‘미르’(Mir) 등의 싱글을 잇달아 냈고, 지난해 신곡을 담은 베스트 앨범 ‘미리미리’(The Original)도 발표했다.

올해도 5월 싱글 ‘투나잇’(Tonight)과 이달 12일 싱글 ‘심장이 기억해’를 선보였다. 2015년부터

SBS TV ‘불타는 청춘’을 통해 예능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세상의 모든 사람 스페셜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00 2018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발경기 월드시리즈 2차전 <LAD저스:보스턴>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2018 세계공영방송 서울총회 특집 다큐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오늘의 탐정(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끝까지 사랑(재)	25 헬로킴지 동물교실 50 UHD 맨드롱 뚝뚝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충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가드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20 드래곤에그 50 전국 중목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남녀 1000m 외>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25 판다랑 55 숨바꼭질(재)	00 뉴스브리핑
3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kbc-jtv 공동제작 히스토리쇼, 천년의 이야기
4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KBS광주 연중 특별기획 남도스페셜	00 또봇 V 15 보토스 패밀리 30 주간연예수첩	15 좌충우돌 만국 유랑기	00 SBS 오 뉴스 45 KBC 저녁뉴스
5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생생정보 스페셜	15 생방송 빛날	00 무학행(재)
6	00 KBS 뉴스 7 35 한국인의 밥상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토크
7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속보이든TV인사이드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8	00 KBS 뉴스 9			
9	00 KBS 스페셜 안동호 쇠제비갈매기의 비밀	00 오늘의 탐정	00 내 뒤에 테리우스	00 흥부와쇠 :심장을 훔친 의사들
10	00 KBS 뉴스라인 30 오늘밤 김제동	10 해피투게더 1~2부	10 대장금이 보고있다 1~2부	10 무학행 1~2부
11	0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5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스포츠 다이어리 40 문화사책	30 나이트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5:30 통일 미리보기 <뒷편에 군인 이야기>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톡! 보니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9:00 레이디버그
06:20 세계테마기행	13:00 독도채널e	19:30 EBS 뉴스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10 장수의 비밀	19:5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07:30 꼬마버스 타요	13:40 다큐 시선	20:40 세계테마기행 <반전매력 독일 4부 흐르는 라인 강물처럼>
08:00 당동맹 유치원1~2	14:30 엠버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21:30 한국기행 <소음기행2 4부 시장 가는 길>
08:30 미니특공대 X	14:45 로보카 폴리	21:50 다큐 시선 <70년의 기다림>
08:45 알라라 뿌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09:00 두다다쿵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09:30 원더볼츠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5:05 지식채널e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5:10 과학 다큐 - 비온드(Beyond)
10:30 한국기행(재)	16:30 알라라 뿌우(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방울토마토 결절이와 소고기 사부사부>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17:15 두다다쿵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36년생 망심 하다가는 수습하기가 어려워진다. 48년생 크게 상관될 일이 아니니 개의치 말라. 60년생 자신이 술 선수범 한다면 모두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72년생 요동을 치더라도 별 것 아니니 내버려 두라. 84년생 두루 살피고 판단해야 후회가 없다. 행운의 숫자 : 17, 60	午	42년생 복잡하게 얽혀 있던 것의 가닥이 잡히는 시기이다. 54년생 선수를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66년생 병행하여 나아가도 무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 이익이다. 78년생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양상이니라. 90년생 실제로 접하게 되는 마당이다. 행운의 숫자 : 31, 50
丑	37년생 갈림길에 서게 되리라. 49년생 침착해야만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느니라. 61년생 성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73년생 이익의 창출이 매우 크다. 85년생 의도는 좋으나 때와 장소를 가려서 행해야만 능률적이다. 행운의 숫자 : 50, 32	未	43년생 부분으로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55년생 번복되어질 수도 있는 토대이다. 67년생 어떠한 마음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처지가 달라진다. 79년생 생산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형상이다. 91년생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매여 있다. 행운의 숫자 : 19, 91
寅	38년생 걱정할 일이 아니니 마음 편히 있어도 된다. 50년생 원인을 잘 헤아려 보면 충분히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62년생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이다. 74년생 안정된 궤도에 진입하라. 86년생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과감하게 진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34, 22	申	44년생 차분하게 마음먹되 실행은 민첩하게 하자. 56년생 내심과 표면상의 명분은 명확하게 구분하자. 68년생 망각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80년생 실행 자체의 의미가 더 강하다. 92년생 매우 어색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96, 15
卯	39년생 소강상태 하에 놓여있는 기존의 국면을 타개할 만한 획기적인 일이 벌어질 수다. 51년생 대응 관계에 놓이게 된다. 63년생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느니라. 75년생 일부에 문제점이 드러난다. 87년생 원인이 파악된다면 지체 없이 처리하라. 행운의 숫자 : 00, 82	酉	45년생 막연하다면 위험에 처해지기 십상이다. 57년생 마음에 차지 않을 수도 있으니 큰 기대는 하지 말라. 69년생 암투성이의 운해로 진입하고 있다. 81년생 중대사와 연결 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93년생 뜻을 확실히 펼쳐도 좋을 때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49, 66
辰	40년생 전반적인 관리에 세심한 공을 들여라. 52년생 자심한 바와 행동이 시종일관 일치해야 성취하라. 64년생 공연히 헛수고만 할 공산이 크다. 76년생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수고로움이 보인다. 88년생 현황의 추이대로라면 길정이 명백하다. 행운의 숫자 : 32, 42	戌	34년생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 지 점검해 보자. 46년생 귀찮을 것이다. 58년생 중요한 부분에 허점이 보이니 속히 보완하라. 70년생 상대가 원하는 바에 따라야 의미가 있느니라. 82년생 불쾌와 기쁨이 더불어서 올 수이니 반길만치로다. 행운의 숫자 : 44, 11
巳	41년생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다. 53년생 핵심을 파악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65년생 분간하기 힘들 것이니 매우 조심하라. 77년생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일이 원하는 대로 이뤄질 수 있다. 89년생 지속성이 특기로 이끌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9, 58	亥	35년생 꿩잡다. 47년생 현장 감각이 절실히 요구 되는 상황이다. 59년생 단순히 보일지라도 실제 내막은 복잡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71년생 시거나 내용을 잊고 있는 일이나 살펴보자. 83년생 겉보기 보다는 진정한 가치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8, 8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